

# 경찰, 김승환 교육감 폭행사건 수사

### 현장 채증자료 분석 가담자 전원 출석요구키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북어린이 집연합회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을 빚다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 1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2시30분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교육청 추경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누리과

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몸싸움을 벌이던 중 김 교육감과 전북도교육청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폭행사태는 김 교육감이 도의회 정례회 참석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붙겨졌다. 도의회 정례회장을 빠져나오는 김 교육감을 발견한 어린이집 회원들 중 일부가 김 교육감에게 달려들어 목살을 잡고 옷을 잡아 끄는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손등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어린이집 회원

들을 말리던 김규태 부교육감도 회원들에게 밀려 바닥에 떨어져 인구 출혈과 찰과상을 입었고, 전북도교육청 직원 10여명도 다쳤다. 양측의 격렬한 대치 과정에서 전북도의회와 도청을 잇는 3층 구름다리 출입문 유리도 파손됐다.

경찰은 이번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폭행사태를 명백한 폭력사위로 규정하고, 현장 채증자료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폭행 가담자 전원을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도교육청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에 대해 출석요구 등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전북어린이 집연합회의 폭행 가담자만 1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현장에 200여명의 어린이집 회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수사 진척상황에 따라 대규모 소환사태도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채증자료와 CCTV 분석 자료와 구증자료 등을 확보해 폭행 가담자 전원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 주택가 빈집털이 30대 구속

백주 대낮에 상습적으로 주택가 빈집을 텅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10일 광주북구와 익산, 남원 등에서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2시에 광주 북구 용봉동의 B(43·여)씨의 빈 집에 침입해 안방에서 113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광주와 익산, 남원 등에서 총 4회에 걸쳐 귀금속 및 현금 등을 절취해 594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안진수 기자

### 원룸촌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

도심 주택가 원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도심 주택가 원룸에 성매매를 업소를 차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성매매 업소 여종업원과 손님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0시 55분께 완산구 주택가 한 원룸에서 성매매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단속 당시 출입문을 굳게 잠그고 40여분 가량을 대치하며 창문 밖으로 성관계에 쓰인 콘돔을 담은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으나, 되려 쓰레기봉투 속에 든 콘돔으로 범행이 탄로났다.

업주의 설득으로 40여분의 대치는 막을 내렸다.

/안진수 기자



'효율적인 국제협력 및 해외홍보방안'

전주시는 지난 10일 한국전통문화전당 대강당에서 최충주 주 파키스탄 대사를 초청해 전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국제협력 및 해외홍보방안'을 주제로 국제화 강연을 펼쳤다.

## 검찰, 이진식 김제시장 '업무상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 고향 후배 사료업체 특혜의혹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제조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식(71) 김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10일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 고향 후배 업체에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 시장의 고향 후배 정모씨(62)를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

원사업과 관련해 김제시가 정씨가 운영하는 사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14억6300만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를 납품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의 고향 후배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료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김제시에 납품하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정씨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않았고, 처를 통해 돈을 건네받은 뒤 즉시 반환한 점 등에 비춰 뇌물수수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고 이 시장에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제시는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 축산농가와 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11개의 제품을 추천받아 심사한 결과, 정씨 회사의 제품이 단가가 높아 농민 선호도가 2% 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제품 구입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1회 납품요구 대상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조달청에 등록된 5개사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을 요청해야 하지만, 1억원 미만 분할 구매 방식으로 가축 보조사료를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주 기자

## 전주시,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추진

전주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고정밀(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이 추진된다.

전주시는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송동과 중화산동, 금암동, 인후동, 효자동 일대를 중심으로 60도엽(15km<sup>2</sup>)의 고정밀(1:1,000)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1:1,000 수치지형도'는 지형·지물을 일정한 축척에 의해 기호, 문자, 속성 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타낸 지도로,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변환한 전자도면이다.

수치지형도는 상·하수도 관망도 등 지하매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도와 차도, 도로시설물 위치 등 시설물 관리와 도시계획, 건축물 인허가와 각종 공사 설계업무 등에 활용된다.

이를 위해 시는 항공사진을 이용해 도안을 작성하고 60여 종의 시설물에 대한 지리조사를 거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정위치 편집과 구조화 작업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수치지형

도 갱신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고정밀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최근 4년간 추진된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이 주로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 등 도시개발 중심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면서 인구밀도가 높은 전주 구도심지역의 수치지형도의 최신성이 저하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전주시 전역(206km<sup>2</sup>)을 대상으로 지리정보사업, 도로와 지하시설물사업 등을 통해 총 962도엽의 1:1,000 수치지형도를 제작했으며, 2010년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공동으로 수치지형도 수정 및 제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양도식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수치지형도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생활지리정보, 각종 용역 사업 등 생태도시 전주 만들기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수치지형도 갱신사업을 통해 최신성을 확보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공간정보를 활용·확대 할 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 이전·투자기업 융합협 회원사 한은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재개 촉구

전주 이전 및 투자기업 융합협의회 39개 회원사가 전북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전주 이전 및 투자기업 융합협의회(회장 강희순)은 이날 한국은행의 지역 차별 정책 중단과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업무의 신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화폐수급업무의 필요성이 가장 큰 전북본부가 화폐수급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감과 상실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전북혁신도시 이전과 기금운용 본부의 이전을 앞두고 있는 전주시의 미래 금융산업 특화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전북 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복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경우 전주에서 광주전남본부까지 100km의 거리를 감안할 때 원거리 화폐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도난과 사고발생의 부담감이 큰 상황"이라며 "전북지역이 왜 화폐수급업무에서 제외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전북과 광주·전남을 관할하는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본사, 행정기관 등 90% 이상이 광주에

편중된 형편에 화폐수급업무마저 광주전남본부에 통합되면서 호남 내 지역발전은 한 걸음 더 멀어졌다"며 "전북지역은 신규투자여건이 감소돼 지역경제 성장에 막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화폐수급업무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순 회장은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화폐수급업무가 개시된다면 전북지역의 금융기관이 화폐수송에 있어 부담이 경감되고, 지역 내 화폐수급이 원활해져 전북도의 금융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도내 지자체와 정차권,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재 기자

### 술 취해 음식점 광고판 들고가

술에 취해 음식점 광고판을 들고 간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는 10일 음식점 앞에 세워진 광고판을 가져가 절취한 혐의(절도)로 이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1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에 있는 한 음식점 앞 노상에 세워진 광고판(30만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안진수 기자

국립전주대학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